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묵주(默珠)’ 기도는 구슬을 잡고 깊은 묵상에 잠긴다는 뜻이다. 깊은 묵상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 성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신 또한 아름다움을 지니겠다고 다짐한다. 입으로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성덕의 꽃을 피우는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깊은 묵상에 잠긴다.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와 소리기도, 무언의 기도와 유언의 기도로 엮인 기도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름답게 된다. 묵상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한다. 이 기도의 특성은 마리아적이지만, 그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 기도는 마리아의 기도의 메아리이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느님을 관상하는 신자이어야 한다. 그래야 성덕의 꽃, 장미꽃을 피우고 덕행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 그리고 마리아의 신비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마리아와 함께 있다. 교회는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신 길을 모범 삼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마리아와 함께 살아야 한다.

묵주기도 성월을 10월로 설정한 것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10월 7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6세기 서방교회가 분열된 틈을 타서 터키의 이슬람교도들이 로마를 정복하려고 침공하였는데, 이때 비오 5세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의 제왕들과 공동 방어를 다짐하고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적은 병력이었지만, 묵주를 들고 전장에 나간 그리스도교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날이 10월 7일이었으며, 이때 부터 이 기념일이 생겨났다.

10월이 묵주기도의 달이 된 것은 레오 13세 교황 때였다. 이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일맥상통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전역과 전 세계에 퍼진 사상적 이단,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서의 질서의 혼란과 사상적 변혁 속에서 시대적 오류와 그릇된 사조에 대처하고자 묵주기도의 달을 정한 것이다.

묵주기도는 복음서의 요약이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따라간 마리아를 본받는 기도이다. 아무리 세파가 험해도, 모든 죄와 악마를 용감하게 이긴 마리아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세상의 오류와 그릇된 사상을 정복하는 참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10월 묵주기도의 달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세상의 어떠한 오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가다듬는 달로 삼아야 한다. 성모님의 신앙과 생활을 본받아, 불의와 싸우는 방법을 연마하는 달로 알아야 한다. “태중의 아드님이 또한 복되십니다.” 라는 말로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는 달로 알아야 한다. [경향잡지 2008년 10월호, 이정운 베드로 몬시뇰]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영혼을 위하여	율리아노가정	생	박창일 헨리코 위하여	유 가브리엘라
연	홍성규 이나시오의 영혼을 위하여	이재덕 스테파노	생		
생			생		

자	전 려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10월6일(화)	연중 제27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855.00 \$ 1,293.00
10월7일(수)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	오전 7 : 30	토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43.00 \$ -
10월8일(목)	연중 제27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15.00 \$ 20.00
10월9일(금)	연중 제27주간 금요일	구역미사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본당의 날) 추석 연미사 봉헌금	\$ 16.00 \$ 300.00 \$ 2,470.00
10월 10일(토)	연중 제27주간 토요일	오후 7: 30	사제관 건축 합 계	\$ - \$ 5,012.00
10월 11일(일)	연중 제28주일	오전 9 :00 오전 11:00	미사 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7~9 이상기 8월 이성훈 9월 봉창의 김병길 송민자 전재순 지영욱 10월 이정규 김광희 9~10월 운영자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의 :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지구 사제회의 - 10월 7일 (수) 트라이벨리 성당

4. 북가주 성령기초 목상회

- ◆ 10월 16일(금) 오후4시~18일(일) 오후 3시
- ◆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
- ◆ 신청 : 이순자요안나, 김은영폴리나

5. 10월 구역모임 안내 - (금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구역	장 소	9월
1	9 (금) 오후 7:30 이베드로 형제님 댁 (구역미사)	23명
2	11 (일) 9시미사후 Apple Hill 피크닉	21명
3	9일(금) 오후 7시 장원석 바오로씨 댁	24명
4	9일(금) 오후 5시 도미질라 댁	5명
5	9일(금) 오후7시30분 서상훈 바오로형제님 댁	22명
6	9일(금) 오후 7시 이나숙 데레사 댁	10명
7	9일(금) 저녁5:30 전베레나 댁 (댁)	10명
8	11일(일) 미사후 요한방	11명
9	18일 (일) 미사후 오후 1:00시	40명
10	10일 (토)오후6시 장수영 스테파노(댁)	13명

6.본당 특별 강론

- ◆ 일시 : 10월 13일 저녁미사 중
- ◆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 (부산교구 성령지도신부)
- ◆ 주제 : 성령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

7. 본당 골프대회

- ◆ 일시 : 10월11일 (일) 오후 1시 30분
- ◆ 장소 : Morgan Creek (shot gun) : 이번 골프대회는 연도책과 성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 참가비 : 80불 부부 150불 점심 저녁 제공
- ◆ 많은 참여와 성도님들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8. 고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장순옥 스테파노 (장성영 스콜라스티카)의 부친 故장성석 미카엘 형제님께서 지난 10월 1일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시애틀 성당에서 있고, 연도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목주성월 각 단체들은 목주기로 봉사해주세요

9. 70's & 80's 디스코 댄스 파티

- ◆ 일시 : 11월 7일 저녁 7시~10시
- ◆ 참가비 : Pre ticket \$20 each, At the door \$30 each
- ◆ 간식제공, 베스트 의상상 추첨 문의:서메리 916-271-3671

10. 새크라멘토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92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	\$40,295.00

11. 성전 건립기금 및 목주기도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3,437.21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4,445	271,663

12. 감사합니다!

- ◆ 김명길 베드로 가정 김치 1박스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
- ◆ 이번주 점심봉사 : 아빌라데레사회 보조 : 신부님 국마리아
- ◆ 다음주 점심봉사 : 8구역 보조 : 이호순 수산나 (\$200)

지구 & 교구소식

- 제20차 전체올트레야 모임
- ◆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엘리자벳 성당
- ◆ 일시 : 10월 10일(토) 오전 9시~오후4시
- ◆ 신청 : 김동현 미카엘 많은 꾸리실리스타들의 참석부탁 드립니다.
- ◆ 회합 : 18일(일) 미사 후 성당
- ◆ Pr 간부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모임 안내

- 리노공소 : 18일(일) 오후 2시 30분 출발
- 사목회 : 10월 23(금) 미사 후 엘리사벳 방
- ME 모임 : 25일(일) 9시미사후 Ecco Lake 산행
- 성시간 및 성령찬미 미사 : 30일(금)
- ◆ 문의 : 김안셀모 김프란체스카 대표부부
- 성서 백주간 새로이 시작합니다
- ◆ 첫모임 : 10월 6일(화) 미사 후 데레사방
- ◆ 연락 : 이지연 크리스티나 (916)500-3830

주일 /한글학교

- 재능기부 하실분 모집합니다
-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 ◆ 연락처 :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 325purple@gmail.com

- ◆ 문의 : 이미경 아네스(530)906-0265 /오만정크리스티나(213)700-0051
- annleent@gmail.com

전례 봉사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5일
해 설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리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혜련 (데레사)
1 독 서	김민규(다미아노)	구준모(요 한)	진엘리사(엘리사)	안강순 (앤젤라)
2 독 서	송봉금(다미아나)	김준희(키아라)	임정남(실비아)	이서향(미카엘라)
복 사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셉)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바오로)
/기도/청소	5GF~6RC	5GF~6RC	5GF~6RC	5GF~6RC
헌금 위원	고공자 임그라시아	전비아 김미해	임상일 송돈희	이나숙 정의주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제인 안 변호사 과산법 전문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 음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창 2:18-24 제2독서 히브리서 2:9-11 복음 마르코 10:2-16

화답송 : 시편 128(127), 1-2, 3, 4-5, 6(◎5참조)



화답송

주님은 한평생 모든날에 - 복을내리시리라

너와 나는 천생연분

. 충성! 아니 찬미예수님, 7년차 군종신부 류한빈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처음 한 해는 시간이 참 더디게 느껴졌는데 벌써 일곱 해째 군종신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입대했을 당시, 두 번 군에 왔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땀방 부리기도 하고 호락호락하지 않게 보이려고 센 척도 하며 자존심 내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착실한 국가 공무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짬밥이 쌓이니 요령이 생겨 마찰이 덜 생기기도 하거니와 주어진 환경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사제답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군인주일을 맞아 군종신부로서 군대 이야기보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은 저의 서품축일이었습니다. 보좌신부로 발령받은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1번째의 서품축일입니다. 30대 중반에 입대하 이후로 교구에서 사제로 살았던 시간보다 군에서 사제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서품축일은 늘 기쁘지만 특이하게도 올해의 서품축일은 더더욱 기쁜 날이었습니다. 축하식도 없었고 누구 하나 기억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사제로서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무덤덤한 편인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제서품 받았던 그 날 만큼 어쩌면 그날보다 더 기뻐한지도 모릅니다. 기뻐한 이유가 군종신부라서 더 행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대에 있던 본당에 있던 똑같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을 사제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사제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날 따라 기쁨과 함께 솟아났습니다. 사제로 살 수 있는 그 자체에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이 군대이라 해도 역시 기뻐할 수 있었고 본당이라 해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품축일 느꼈던 기쁨은 오늘 복음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사목하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격려 같기도 합니다. 군종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군인이자 사제로서 잘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 나의 자리에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보다 더 일심동체로 살아야하는 관계로 말입니다. 서품축일이 마치 예수님과의 결혼기념일처럼 느껴져서 기뻐고 그래서 특별한 은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 같은 배우자와 살아가니 기쁘고,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알아가며 사랑이 무르익으니 결혼하기 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단칸방이면 어떻고 전셋집이면 또 어떻습니까. 부대에서 살면 어떻고 전역해서 살면 또 어떻습니까. 그저 함께하는 기쁨만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랑하는 부부처럼 어디를 가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처럼 서로를 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으니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사랑을 얻으려고 그동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나를 어르고 달래주고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짝사랑으로 지쳐있는 나의 배우자에게 나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아가서의 연인처럼 신랑을 그리워하고 찾아 해매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청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

강철 본당 류한빈 안드레아 신부

참모습

내이웃의 눈물 위해
무릎 꿇어 비는 일 없어도
마음 꿇어 빌 때
나 그 때 보리라
그 대 모습을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장종지